

전남 4개 지자체 '도자 세계화' 국제행사 개최 시동

강진·목포·영암·무안 '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기본계획 보고회 2028년 봄 한달간 개최...20개국 150개 기업·관람객 200만 유치 목표

강진과 목포, 영암, 무안 등 4개 자치단체가 전남 도자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28년 봄에 함께 국제행사를 열 계획이다.

전남도와 목포시·강진군·영암군·무안군은 지난 22일 강진군청에서 '전남 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진군 강진군수와 각 시·군 관계자,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도자기는 'K-문화'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고려청자·분청사기 등 전통사기의 명맥을 잇고 있다.

전남은 생활자기 국내 생산량의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이 무색하게 경기도 도자보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차세대 'K-문화'를 알릴 도자기엑스포는 지난 2022년 8월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강진·목포·영암·무안이 뜻을 모아 추진해왔으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4개 시·군의 행사 개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후 전남도에 엑스포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허준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와 미래를 결합하는 '세라믹'의 접점을 활용해 'K-도자기·세라믹'을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4개 지자체는 전남도의 전폭적인 협조를 건의하면서 K-문화를 이끌 도자 산업과 '세라믹' 산업을 융합한 엑스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자에서 비롯된 세라믹은 오늘날 휴대전화나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엑스포에서는 고려 푸른 청자부터 현대 기술의 최신 소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도자의 가치와 다각적인 사업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도와 4개 지자체는 엑스포를 이용해 '바이오밸리'를 조성한 충북도의 사례를 고려해 전남에 'K-세라믹 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할 생각이다.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도자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엑스포는 오는 2028년 봄에 4주간 개최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목포 생활자기, 강진 청자, 영암 도기, 무안 분청사기 등 4개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담은 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

본보기로 삼는 박람회는 중국 경덕주 국제도자 박람회와 리링 국제도자산업엑스포, 일본 아리타 도자축제 등이 있다.

엑스포는 가상공간(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엑스포'를 표방한다.

20개국 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관람객 200만명을 불러모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2500여 명의 일자리와 소득 28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60억원을 이룰 계획이다.

엑스포를 여는 4개 지역은 도자기의 핵심 원료인 점토, 납석 등 풍부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윤택한 기술력과 영산강 해상 교역을 통해 예로부터 도자 산업이 발달했다.

목포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도자기기업인 행남자기 본사가 있던 곳으로, 생활도자기박물관이 있다. 강진은 국내 청자도요지의 50%가 분포됐다. 고려청자박물관을 운영하며 청자축제를 52년째 개최하고 있다. 영암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유도기(施耐磁器)인 구림도기에서 새롭게 출발한 도자



전남도와 강진·목포·영암·무안 등 자치단체가 지난 22일 강진군청에서 '전남 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8년 개최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기 '영암 도기'를 자체 개발했으며, 도기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도자복합산업특구'로 지정된 무안은 삼국시대부터 용기 등을 생산해 온 도자의 역사와 명성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윤광석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는 "전남 서남권의 도자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도자 문화산업에 대한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차세대 K-문화를 책임질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설 성수품 장만하고 한우세트 특별 상품도 받고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설 명절 기획전...구매객 이벤트

나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에서 '설 명절 기획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전에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 한라봉, 사인 머스켓을 비롯한 과일과 한우우이 세트 등 농축산물, 가공식품 50여 종을 선보인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배와 한라봉 시식 행사가 열리고 다음 달 5일까지 택배 배송 예약도 받는다.

행사 기간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우 세트와 삼겹살·묵살 세트 등을 특별 상품으로 제공한다.

5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600여 종 로컬푸드 경품으로 구성된 '로컬푸드 북권'도 받을 수 있다.

설날 연휴 2월10~11일, 이틀간 휴업한다.

<나주=송영철 기자 ycs@kwangju.co.kr>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여는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나주시 제공>

"남도여행은 강진에서 반값으로"

강진군, 내일 서울서 비전 선포식...유홍준 교수 강연도

"올해 가족여행은 반값으로 강진에서 즐기세요."

강진군이 오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식에는 재경강진군향우회, 언론사, 관광협회, 여행협회,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여행작가, SNS 관계자, 서울·경기 맘카페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진 오감통 뮤지션인 코지재즈오피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반값 강진 관광 비전' 발표, 강진군청 김지혜 주무관의 반값 강진 관광 가이드,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의 '강진의 문화관광'에 대한 강연도 이어진다.

홀 밖 로비에서는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 오프라인 사진신청 접수, 시음회(황칠차·동백발효 식초·하멜맥주), 강진 농·특산물 전시, 강진 리빙룸 전시(포토존)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강진군은 올해 고물가 등 국가적 경기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반값 관광'이라는 파격적인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2인 이상의 가족이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소비 금액의 50%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 난임부부 시술 지원...둘째 낳으면 300만원

임신·출산 지원제도 대폭 강화 난자 냉동 비용 등 소득 제한 폐지 둘째아 이상 육아용품비 50만원

장성군이 새해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 난임부부 지원, 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올해부터 난임부부 양방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난자 냉동 시술비,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난자 냉동 시술비는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대 여성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도 난임 진단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지원도 소득에 따른 제한을 폐지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 가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



장성군이 올해 한층 확대된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가을 황룡강을 찾은 장성군민. <장성군 제공>

는 첫만남이용권은 이전까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늘었다.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도 '셋째아 이상 지급'에서 '둘째아 이상 50만원'으로 변경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원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등 올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크게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and 신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자치 일꾼 288명 위촉



담양군 '4기 주민자치회' 위원 288명이 지난 23일 열린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의 자치 일꾼으로 일할 '4기 주민자치회'가 지난 23일 출범을 알렸다.

이날 담빛농업관 강당에서 '4기 담양군 주민자치회' 출범식이 열렸다.

4기 자치회는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288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까지 활동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위촉

장을 주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했다. 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의 문화·복지·편의 증진, 마을자치회 지원, 정책사업 제안·건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과 간사로 구성된 주민자치연합회의가 첫 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 우수시책 제안하면 최고 300만원

'우수제안 시상제도' 강화

함평군이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우수제안 시상제도'를 강화한다.

함평군은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수제안과 '창의 마일리지' 제도 시상이 규모가 커진다. 담양군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제안을 제출하면 등급에 따라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시상금을 준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제안의 절차상 단계 도달 여부와 제출 빈도에 따라 차등을 뒤 '창의 마일리지'를 준다.

연말에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높은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시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제안은 각종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안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공무원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연중 참여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함평군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받으세요

다음달 2일까지 모집...사업개발비 지원·장비 교체 등

화순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규 사업개발비와 신규 시설 설치·노후 장비 교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품 공정 개선,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행정안전부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등이 포함된다.

기업별 지원 금액으로 사업개발비는 연간 최대 1억원, 시설·장비 사업은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고도화 지원 사업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육성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과 지역경제과(061-379-31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